

《전쟁연습중단! 미국반대!》, 《한미동맹 해체하라!》

— 8.15 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반미, 반윤석열투쟁 고조 —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주로총,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진보 운동단체들이 지난 7월 23일 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시국성명, 문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역도를 단죄요청하고있다.

이들은 윤석열역도가 대북적대시발언들과 대규모적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개, 미국의 핵전략자산전개 및 반복배라살포목인 등으로 최악의 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윤석열이 북남대결을 한사코 추구한다면 민중은 탄핵의 초보를 과감히 들것이다》, 《중미, 반복정권은 피친의 몰락을 면치 못할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런 통일선봉대활동을 벌리면서 《미국과 윤석열이 《슬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것은 전쟁을 하겠다는것이다》, 《한반도를 전쟁의 화염속에 몰아넣고 동맹의 길을 열어놓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조선반도의 전쟁기지와 반대!》, 《전쟁위기를 부르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당장 중지!》, 《한미일군사협력반대!》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녀성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남북노동자결의대회, 반전집회, 전쟁연습규탄집회, 평화통일시내대회, 《8.15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집회들을 열고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

다양한 반미, 반윤석열투쟁을 적극 전개하였다. 평화통일시내대회를 비롯한 90여개의 정당, 단체들로 조직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13일 서울에서 7000여명의 참가자로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고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남조선강점 미군을 몰아내고 동맹의 길을 열어놓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조선반도의 전쟁기지와 반대!》, 《전쟁위기를 부르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당장 중지!》, 《한미일군사협력반대!》 등의 구호들을 웨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녀성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남북노동자결의대회, 반전집회, 전쟁연습규탄집회, 평화통일시내대회, 《8.15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집회들을 열고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

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대한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는 글이 적혀진 얼굴조각을 망치로 부서버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에서도 《시민의 명령이다. 한미일군사협력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반미구호들을 들고 풍선의 《대통령실》을 4개 방면에서 포위해들어 가는 행진을 하면서 미국에 추종하는 윤석열을 용납할수 없다고 기세를 돋구었다.

한편 민주로총, 《한국로총》을 비롯한 노동운동단체들은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남북노동자공동실천기간》으로 정하고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부침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장비반입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였다.

리 광 희

수자와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인 《슬지 프리덤 실드》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슬지 프리덤 실드》의 기본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떠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강행하는 《슬지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지금까지 벌려온 부침전쟁발장난의 연장이며 그 절정이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역적패당은 집권후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부침전쟁소동을 그칠새없이 벌려왔다.

보라, 5월 초 조진동태수역에서 3대, 해양조사선 2척을 동원하여 미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샘슨》호와 강도높은 연합함대합동훈련을 강행. 5월 9일부터 수습에의 전투기들과 미군특수작전수송기가 참가한 대규모 남조선미국연합항공훈련인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을 두주일간 강행.

5월 11일 남조선미국연합사령부의 지휘아래 남조선

강점 미8군과 함께 2022년 전반기 남조선미국연합의무지원기동훈련 실시.

6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의 오키나와해상에서 남조선미국 항공모함합동훈련을 4차례 실시하였다.

6월 13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 《2022년 화랑》훈련을 벌려놓고 6월 24일부터는 대규모공군전투훈련인 《소링이글》 훈련 진행.

7월 11일부터 《F-35A》를 포함한 남조선과 미국의 전투기들을 수습대 동원하여 남조선미국연합비행연습을 진행하고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조선강점 미군과 연합하여 자행포와 박격포, 공격형직수기, 양로비 비롯한 무장장비들과 8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공중대지상합동훈련 실시.

8월에는 미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경보 및 탄도미사일탐지, 추적훈련인 《퍼시픽 레콘》을 진행하고 런이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인 《림팩》 훈련 참가.

이외에도 남조선호전파들은 그 무슨 《참수작전》을 목적으로 한 특수훈련도 광란적으로 벌려오고있다.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로즈크랜스공

본사기자 배영일

않으면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교교체를 암시하는 목소리들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다.

이제 극도로 불안해진 역도는 미국상전들을 런이여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애써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느니, 많이 도와주

을 타진한 만남》으로 평화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버림을 받을가봐 벌벌 떨며 상전의 바지개방이를 부여잡고 놓을 줄 모르는 윤석열역도가 참으로 가궁하기 그지없다.

친미, 종미에 증독되어 미국상전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씹겨차릴 투등사대매국노가 《대통령》의 갑투를 쓰고 거들먹거리니 남조선이 앞으로 불행과 재앙의 진멸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남조선에서 반윤석열투쟁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윤성

부침부담의 무늬가 없는 망척봉기다

옛글에 이르기를 60대는 인생의 회로에 락, 풍상고초를 다 겪은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60고개를 넘었다는 윤석열역도의 너무나 험되고 어수선한 작태, 갈수록 더해지는 무지스럽고 경박한 언행에 허구론 실소를 금할수 없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부흥에서 수십년간 사업해온 사람으로서 역대 최악의 무지무능한 《대통령》, 비상식과 반리성으로 집권된 《대통령》, 북남관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인식과 리해조차 완전결여된 그 행태를 보고 더이상 할수 없을수 없게 이렇게 펜을 들었다.

역도의 실체는 취임연설과 《8.15경축사》에서 크게 자랑한 《담대한 구상》이라는데서 집중조명해볼수 있을것이다.

《담대한 구상》??? 처음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통두사미라고 광고가 요란하면 실속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

력대 괴뢰집권자들이 모두 그러했듯 화려한 《대통령》, 《대북구상》의 간관속에 내세워져있는 본질을 해부해보면 하나같이 뿌리깊은 《흙수통일》 야망이 독사처럼 파리를 틀고있었기때문이다.

때문에 역도가 《8.15경축사》라는데서 《담대한 구상》의 내용에 대해 라렬하였을 때 100일이나 고심하고 구상한것치고는 너무도 어이없고 쓴웃음이 나와 다시 상기하는것조차 시간강비로 여겨진다.

북남관계의 근본은 물론 가장 초보적인 문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있는 친하바보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력대 북남관계가 어떤 우어욕을 겪어왔는지, 무엇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되었는지 초보적인 문제부터 인지하지 못하고있으니말이다.

어제도 그랬지만 악화된 현 북남관계를 해결하자면 동족에 대한 적대적의견과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외세의존과 사대주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북남관계해결의 가장 근본적이고 선자적인 중대과제, 해결방책이라고 볼수 있다.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의지가 한조각이라도

을 빌어서라도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보려는 흥심의 집중적 발로이다.

역도가 《대통령》 갑투를 쓰자마자 미국상전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한미확장경제전략협약》 제가동,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범위와 규모확

대하기 위해 미국상전들과 런이여 불순한 모의판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전들과 변질나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것은 통치력이 한계점에 다달은 자기를 미국이 헌신적처럼 버릴수 있다는 우려를 가세보려는데도 있다.

남조선문제전문가 리경식

그렇게도 미국없이 못살겠는가

최근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전들을 런이여 만나 반공조약박공조를 비리했었다.

역도는 지난 9월 서울주재 미국대사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동시에 만나 비공개담담회 벌려놓고 12일에는 전 미주무장관을 만나 조선반도안보상황에 대해 모의하였다. 이어 미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장과 쑤더공문을 벌렸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고위급인물들과 함께 당면한 조선반도현안과 북의 동향,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느니, 북의 핵과 미사일고도화가 핵확산금지조약체제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에 큰 도전이라느니 하고 떠들었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전들을 런이여 만나 반공화국공조를 모의한것은 상전의 힘

을 빌어서라도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보려는 흥심의 집중적 발로이다.

역도가 《대통령》 갑투를 쓰자마자 미국상전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한미확장경제전략협약》 제가동,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범위와 규모확

대하기 위해 미국상전들과 런이여 불순한 모의판을 벌려놓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전들과 변질나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것은 통치력이 한계점에 다달은 자기를 미국이 헌신적처럼 버릴수 있다는 우려를 가세보려는데도 있다.

남조선문제전문가 리경식

《아직 얼마 안돼 평가가 조 심스럽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 한다.

《한심하다.》, 《잘하진 잘해.》, 《미숙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수세력의 동향이 이러하니 남조선의 전반적진실이야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집권초기부터 《식물대통령》으로 락인될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보수언론들까지도 윤석열역도에 대한 비관일색이다.

《지난 100일은 어떤 희망도 찾을수 없는 암담함 그자체이다. 정치는 불통, 경제는 파국, 외교는 굴욕, 평화는 실종, 국민은 불안과 실망과 분노속에 살고있다.》

각계층의 분노가 이 정도인데도 윤석열역도는 100일 기자회견이후에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침몰된 소리만 늘어놓는데 급급했다고 한다. 지지불하락, 인사실배, 《국민의힘》의 내부갈등문제 등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못이다.》, 《피쳐본다.》, 《검토중이다.》와 같

윤석열역적패당이 안팎으로 일색인 주구다운 본태를 또 한번 과시하였다고 한다.

얼마전 해외에서 있는 남조선과 일 본사이의 외교장관회담만 보아도 그러하다.

남조선외교부 장관이란자는 회담이 성사된데 대해 감지덕지해하면서 일 제 강제정용피해자 배상문제를 덮어버려 하려는 저들의 속심을 섬나라것들에게 구구히 설명하며 관계개선과 대수출규제지지를 철회해줄것을 거듭 강경하였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한자들의 쓸개빠진 망풍이다.

지난 2018년 남조선법원에서 일 본법정법들이 일제강제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과거죄

본사기자 주광일

가 탄핵당한 박근혜의 전철을 밟게 될수도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국민의 단합된 투쟁으로 윤석열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자.》

윤석열역도의 집권 100일에 남조선 각계층은 이렇게 웨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